

남원시, 도로 예산 450억 확보

농어촌로·마을 진입로 확포장·도로 유지관리 등 투입키로

남원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예산은 유관기관의 사업비도 포함한 것으로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우선 읍면지역시도 확포장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해 2개 노선(L=3.94km)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착수한 임리~매요 도로 확포장공사(L=2.2km)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 내년에 조기 완공할 계획

이다. 서남원C와 노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흑송~장국간 도로 확포장공사(L=1.74km)도 올해 착공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2개 노선(L=1.9km)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추진한다.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L=0.7km)은 급년도 준공예정이며,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L=1.2km)은 올해 착공한다.

이밖에 도로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

한 마을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 사매대울마을 등 4개 마을 진입로 확포장(L=5.0km)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오수~월라 도로 확장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12개 현장에 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박차를 다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지사면 청년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임실군 지사면 청년회는 지난날 29일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지사면 사무소에 기탁했다.

지사면청년회는 18명의 회원으로 일년 전 결성돼 매월 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성금을 모아 년 2회 어려운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최용택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했다"며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현금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돼 희곡교육장 등이 설치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옥천인재숙 올해도 성공신화 이어가

입사생 43명 중 수도권 명문대 17명 등 32명 최종 합격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올해 사관학교 2명을 포함해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에 17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며 대입 신화의 명성을 이어갔다.

군에 따르면 2016학년도 대학입학 최종합격자 발표 결과 옥천인재숙 입사생 43명 중 해군사관학교 1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등 사관학교에 2명, 연세대 2명, 고려대 2명(각1명씩 중부), 서울시립대, 홍익대, 아주대, 서울과학기술대, 동국대, 항공대 등을 포함한 수도권 명문대에 17명, 광주교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방 국립대 13명 등 총 3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정시 지원 학생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 예비합격생에 포함돼 있어 추가합격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옥천인재숙 수료생 43명 중



옥천인재숙 야경

50%이상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사관학교를 운영해 1차 8명이 합격했고 최종 2명이 합격해 사관학교 운영 첫해의

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는 학생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준비한 결과다. 또 최고의 실력을 갖춘 강사진들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고창 식도락마을 신청접수

군, 19일까지...10곳 선정 예정

고창군이 마을별 특화된 음식을 발굴·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2016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 활동을 앞두고 희망하는 마을을 모집한다.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은 '서로 다른 마을과 품어오지만 음식으로 하나 되어, 고창의 맛과 멋을 알리자'라는 취지로 고창군 '식도락 마을'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대표는 이날 19일까지 신청서와 마을지원조사 양식을 작성해 월곡타운커뮤니티센터 1층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063-564-7787)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원과 마을활동전문가들이 마을에 방문심사 후 29일 식도락마을 10곳을 최종발표하게 된다.

식도락마을로 선정되면 식도락마을 푸드 발굴과 주민교육, 마을체험프

그램 개발, 식도락투어 해설사양성교육, 홍보·마케팅 등 고창군과 식도락마을체험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작한 사라져가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얹어 마을의 대표음식으로 선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존과 계승이 이뤄지고, 고창의 맛과 멋을 알리자라는 취지로 고창군 '식도락 마을'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대표는 이날 19일까지 신청서와 마을지원조사 양식을 작성해 월곡타운커뮤니티센터 1층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063-564-7787)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원과 마을활동전문가들이 마을에 방문심사 후 29일 식도락마을 10곳을 최종발표하게 된다.

식도락마을로 선정되면 식도락마을 푸드 발굴과 주민교육, 마을체험프

고창~내장IC 지방도 확·포장 주민설명회 통로박스 설치 검토키로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는 지난날 29일 고창군 신림면 신촌마을에서 전북도 관계자, 군 관계자, 신촌마을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림저수지 제방 구간을 당초 4차선 도로를 제방 아래쪽에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제방 도로 2차선은 그대로 활용하고 2차선

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촌마을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와의 교차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촌마을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차량들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

으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에서 정읍시 입암면 신림리까지의 13.15km 구간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888억원이 투입돼 기존 양복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전통시장 설 장보기 행사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 장보기 행사를 펼쳐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군은 지난 1일을 '전통시장 장보기 날'로 정하고 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황숙주 군수는 이날 월례조회를 마친 후 바로 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상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

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군은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이외에도 오는 5일까지를 설 맞이 장보기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들에게 순창시장 등 관내 3개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개 기관이 참여하는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 단체 시장가는 날, 온누리 상품권 구입, 전통시장 애용 플래카드 게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로컬푸드

남원원협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

남원원협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식이 이란주 남원시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성대히 거행되었다.

남원시 월락동 129-14번지(한빛중학교 부근)에 건립된 남원원협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1월 준공하였으며, 국비 4억5,700만원과 시비 2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0억3,000만원이 투자되어 4,015㎡의 부지에 건립되었다. 건물 총 면적은 1,651㎡(499평)의 규모에 1층 면적은 787㎡로 로컬푸드 판매장과 하나로마트, 카페와 제과코너 등이 들어서 있고 2층엔 785㎡의 면적에 금융접촉과 능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소비자체험 및 교육장 등이 설치된 로컬푸드 복합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원협농협은 작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상공부에 위치한 임시매장 운영하였으며, 체계적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수차례의 출하 농가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자 주도형 로컬푸드 직매장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매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농산물과 100% 관내 농산물로 생산한 가공식품 등 50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구입금액에 0.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한편, 남원원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선 오는 3월 12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하여 경품 응모할 수 있는데, KIA자동차 모닝(대상)부터 양문형 냉장고 LED TV, 드럼세탁기 등의 푸짐한 경품 추첨식을 3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2016년 시정설명회 마쳐

남원시는 지난날 29일 향교동 도동동을 끝으로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더 큰 남원,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주제로 23개 읍·면·동을 차례로 방문해 시정현안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정 설명회가 1월 11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어졌다.

이번 시정설명회는 올해 읍·면·동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이환주 시장이 직접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시는 이번 시정설명회를 통해 지리산권역 개발, 남원예촌 및 예가탑길, 오감민족 아트밸리 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창조적 농촌 개발, 귀농귀촌 지원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였다.

이 시장은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더 큰 남원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기자

남원경찰, 설 특별방범활동 펼쳐

남원경찰서는 최근 더과면 소재 금융기관 및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방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 치안 강화를 위한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전후로 강·절도 등 5대 범죄의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비롯한 폭력사건 또한 증가하는 등 명절기간 기초치안 확립 및 주요 우려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남원경찰서에서 금융기관 및 주유소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한 방범잔란과 함께 강·절도 사전 차단을 위한 목 검문소 운영 등 범죄예방을 위한 총력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